

## 중등특수교육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과 과제

백혜주\*

대구대학교 대학원

홍정숙\*\*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중등특수교육 관련 국내 전문학술지 논문의 질적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등특수교육 분야에 나타난 질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표된 중등특수교육 관련 논문 총 66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연도별·학술지별, 연구주제별, 연구방법별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는 2005년부터 학술지에 등재되기 시작하여 2012년과 2013년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지적장애연구'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둘째, 연구 주제의 동향은 통합교육과 전환교육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방법 중 연구유형으로는 기본적 질적 연구, 장애유형은 정신지체, 학교급별 유형은 특수학급, 참여자 수는 6-10명, 참여자 유형은 특수교사가 주를 이루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주로 개별면담을 통해 이루어졌고 자료수집 기간은 5개월 이상이 많았다. 또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반복적 비교분석법, 진실성 검증에서는 참여자 확인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의 방향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중등특수교육, 질적 연구, 연구 동향

---

\* 제 1저자 (jonah-3@hanmail.net)

\*\* 교신저자 (jshong@daegu.ac.kr)

## 1. 서론

### 1. 연구 목적

중등특수교육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수교육학계와 현장에서는 초등특수교육이나 유아특수교육에 비해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공교육뿐만 아니라 행·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초등특수교육 위주로 행해져 오다가, 요즘에 와서야 장애청소년의 중등교육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중등특수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의 졸업 후 성인기 생활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가능한 독립된 생활을 누리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과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송소현, 유애란, 2011). 이와 같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장애학생들의 교육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진로·직업교육이나 전환교육의 주제가 큰 관심사가 되었고, 이것이 중등특수교육 과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으로 기술)」에서는 중·고등 학교 과정은 의무·무상교육, 고등학교 과정 이후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가정이나 시설에 방치되었던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었고, 또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패러다임이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변화하면서 교육 현장에는 학령기 전부터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일반 중·고등학교 내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거 초등교육 중심의 특수교육이 중등특수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으로 확대되었으며, 특수교육 관련 대학에서도 중등특수교원의 양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유애란, 김명자, 2009).

이는 결과적으로 중등특수교육의 양·질적인 팽창을 가져왔으며 특수교육학계와 교육현장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랜 기간 특수교육학계의 연구들은 실증주의에 기초한 양적연구 방법으로 접근한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은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이 증가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양적연구만으로는 특수교육현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학계에서도 양적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한 연구들이 점차 많이 수행되고 있다. 박미화와 강성중(2012)의 연구에 따르면 질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연구가 2000년부터 미미하게 수행되어 오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특수교육의 특정 분야에서 질적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및 재활 분야(박은혜, 2001), 특수체육 분야(강유석, 노형규, 2009), 유아 특수교육 분야(노진아 외, 2011), 장애학생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서유진, 이동성, 2013), 통합교육 분야(조태곤 외, 2014)가 있다. 이 중 박은혜(2001)의 연구는 연구방법별 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 특수교육에서의 다양한 질적 연구 주제들과 연구 결과 소개에 더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분석틀을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한 질적 연구 동향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난 후인 2009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등특수교육과 관련된 연구동향 분석이 특정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로는 국내 중등 통합교육 연구동향과 과제 연구(이숙향, 2010), 자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 동향분석(강혜경, 2012), 우리나라 전환교육 평가 연구들의 경향과 과제를 제시한 연구(배성직, 2004), 청소년기 지적장애 학생의 적응행동 관련 국내 중재연구 동향 분석 연구(서효정, 2014), 지체장애학생의 전환교육 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강소영, 2014)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등특수교육 내에서 영역을 제한하고 있거나 질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 특수교육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양적연구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주제에 따라 수치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실태는 어느 정도 밝혀진 실정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특수교육 전반에서 양적 연구가 소수자의 어려움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활동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방법론을 선호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10여 년간 질적 연구의 활성화에 따라 특수교육계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 동향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등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질적 연구만을 전반적으로 조명하고 그 흐름을 파악한 동향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의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국내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 논문들의 연도별·학술지별로 게재된 논문 편수의 동향은 어떠한가?
- 둘째,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 논문들의 연구 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 셋째,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 논문들의 연구 방법 동향(연구 유형, 장애 유형, 교육환경 및 학교급별 유형, 참여자 수 및 유형, 자료 수집 방법 및 기간, 자료 분석 방법, 진실성 검증)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분석 논문의 선정

본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중등특수교육 분야의 질적 연구 논문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학위논문은 제외하였다. 먼저 2015년 기준 특수교육분야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15개 중 「유아특수교육연구」를 제외한 14개의 학술지에 대해 해당 학회나 학술지의 홈페이지에서 연도별로 논문을 검색하여 분석 논문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국회전자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4u), 한국학술정보(KSI KISS)의 소장 자료 검색 서비스에서 ‘질적연구’, ‘근거이론’, ‘현상학’, ‘생애사’, ‘내러티브’,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등의 질적 연구 유형과 ‘중등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 ‘장애’ 등의 키워드를 상호 결합하여 검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127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연구자들은 127편의 논문들을 살펴보고, 논의를 거쳐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논문 66편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66편의 논문의 참고문헌에서 분석대상 논문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분석 논문으로 추가할 논문이 없어, 최종적으로 총 66편의 학술지 논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색 연도는 한국 특수교육학계에 본격적으로 질적 연구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한 2000년(박미화, 강성중, 2012)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검토 결과 2005년부터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음이 밝혀졌기에 본 연구의 분석시기를 2005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로 재조정하였다.

둘째, 분석대상 논문은 국내 중등특수교육대상자 및 관련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중등특수교육 관련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이때, 중등특수교육대상자의 범주는 중·고등

학교 및 전공과를 포함한다. 단, 중·고·전공과 학생과 함께 고등학교 졸업생이 포함된 경우는 중·고·전공과 학생이 50% 이상이면 포함시켰다.

셋째, 연구 참여자에 중등특수교사와 초등특수교사가 함께 포함된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중등 특수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초등특수교사가 중등특수교사와 함께 연구 참여자로 포함되어 있지만 분석 논문에 포함시켰다.

넷째,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한 혼합연구와 질적 연구가 양적연구에 추가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제외하였다.

## 2. 분석 기준

### 1) 연도별·학술지별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의 양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총 66편의 분석대상 논문을 연도별·학술지별로 분석하였다.

### 2) 연구 주제

연구 주제는 선행 연구(박승희, 2006; 노진아 외, 2011; 박미화, 강성중, 2012; 서유진, 이동성, 2013)의 분류를 참고하였으며, 연구자 협의를 거쳐 교직문화·교직 적응, 교육체제·교육과정 운영, 교과·교수전략, 통합교육, 전환교육, 고등교육, 가족지원, 관련서비스, 장애학생 행동특성, 스포츠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한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 연구 주제가 중복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 빈도 처리하지 않고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하여 논문의 중심 주제와 관련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주제로 분류하였다.

### 3) 연구 방법

#### (1) 연구 유형

질적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논문(박미화, 강성중, 2012; 조태곤 외 2014; 김영석, 2014)에서 사용된 연구 유형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논문을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현상학, 내러티브, 실행연구, 사례연구, 기본적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기본적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정한 유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질적 연구의 기본적 특성 즉 의미의 탐구, 인터뷰·관찰·문서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방법, 귀납적 자료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는 연구 유형을 말한다(김영석, 2014; Merriam,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유형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논문은 연구자가 임의로 연구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기본적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2) 장애 유형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발달지체를 제외한 9가지 장애 유형과 발달장애, 중복장애, 장애 유형 미제시를 포함하여 총 12개로 분류하였다. 분석논문에서 여러 장애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중복빈도 처리하였기 때문에 장애 유형수와 전체 논문 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3) 교육환경 및 학교급별 유형

본 연구에서는 교육환경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기타, 그리고 미제시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교육환경이 하나 이상일 때 이를 중복 빈도 처리하였기 때문에 전체 논문 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학교급별 유형은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기타로 분류하였다. 학교급이 '중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중학교·고등학교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학교급별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 빈도 처리하였기 때문에 전체 논문 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4) 참여자 수 및 유형

질적 연구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양적연구와는 달리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태곤 외(2014)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참여자 수를 1-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연구 참여자 유형은 학생, 교사, 학부모, 기타로 구분하고, 학생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교사는 관리자과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기타는 관련전문가, 복지시설종사자, 특수교육실무원, 자원봉사자로 세분화하여 다시 분류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수는 선정 논문의 수와 일치하나 연구 참여자의 유형은 한 연구에서 참여자 유형이 중복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중복 빈도 처리하여 전체 논문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5) 자료 수집 방법 및 기간

자료수집 방법은 선행연구(노진아 외, 2011; 박미화 외, 2012; 조태곤 외, 2014)를 참고하여 개별심층면담과 포커스그룹면담, 참여관찰과 비참여관찰, 문서자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중복 빈도 처리하여 전체 논문 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자료 수집 기간은 1개월 미만, 1-2개월, 2-3개월, 3-4개월, 5개월 이상, 미제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영석, 2014; 조태곤 외, 2014)의 자료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선정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 분석 방법의 유형을 유목화 한 뒤 11개로 분류하였다. 즉 반복적 비교분석, Colaizzi 분석(1978), Giorgi의 분석법(1985), Van Kaam의 분석법(1969), Kvale 면접분석(1996), Spradley의 영역/분류분석(1980), Patton의 내용분석(1990), 주제 분석, 개방·축·선택코딩, 컴퓨터프로그램, 기타로 구분하였다.

(7) 진실성 검증

진실성 검증의 유형은 Merriam(1998)이 제시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선행연구(노진아 외, 2011; 조태곤 외, 2014; 김영석, 2014)를 참고하여 참여자 확인, 동료 검토, 삼각측정법, 장기간 관찰, 기타, 미제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기타의 내용에는 심층적 기술, 지속적인 문헌 검토, 기록보존, 연구대상자 선정 고려, 외부자 시선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의 연구에서 진실성 검증이 두 가지 이상 제시되는 경우는 이를 중복 빈도 처리하여 전체 논문 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3. 분석의 신뢰도 확보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면대면 협의,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선행연구의 내용을 참조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각 선정한 논문 66편을 분석한 후 연구자들끼리 상호 교차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교차 분석 후에 제기된 연구자간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을 통하여 수정·보완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연도별·학술지별 동향

먼저 중등특수교육 관련 연구의 양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논문 총 66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대상 논문의 연도별 및 학술지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학술지별 논문 게재 현황

학술지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빈도 (%)
특수교육연구							1					1	1.52
특수교육재활 과학연구			2					2				4	6.06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	1	2	1	1		6	9.09
특수교육						1	1		2			4	6.06
자폐성장장애연구									1			1	1.52
정서·행동 장애연구					1				1			2	3.03
지적장애연구							2	3	3	2	1	11	16.66
지체·중복· 건강장애연구								1		1		2	3.03
특수교육학연구		1			1	2		1		1	1	7	10.60
특수아동교육연구		1						1		3		5	7.57
학습장애연구													
한국특수체육 학회지	1		1	2		1	1			1		7	10.60
통합교육연구							1				2	3	4.54
중등교육연구		1							1			2	3.03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1			1	1.52
언어치료연구									1			1	1.52
시각장애연구								1				1	1.52
아시아교육연구								1				1	1.52
교원교육							1					1	1.52
직업재활연구			1				1					2	3.03
한국교원교육연구		1				1						2	3.03
장애와 고용									1			2	3.03
합계	1	4	4	2	2	7	9	12	12	9	4	66	100
빈도 (%)	1.52	6.06	6.06	3.03	3.03	10.6	13.64	18.18	18.18	13.64	6.06	100	-

박미화와 강성중(2012)에 의하면 한국 특수교육학계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논문은 2000년부터 등재되기 시작하여 2005년까지 전체 분석 논문의 10.9%에 해당하는 논문이 등재되었다. 그러나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 논문은 2005년 ‘한국특수체육학회지’에 처음으로 등재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등특수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2편(18.18%)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9편(13.64%), 2010년에 7편(10.61%)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한편 학술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연구’에 11편(16.66%), ‘특수교육학 연구’와 ‘한국특수체육학회지’에서 각각 7편(10.6%),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에 6편(9.09%) 등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학습장애연구’는 한편의 논문도 게재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중등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관련 학술지에 7편(10.6%)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재활 관련 영역의 학술지에도 3편(4.54%)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2. 연구 주제의 동향

연구 주제는 교직원문화·교직적응, 교육체제·교육과정운영, 교과·교수전략, 통합교육, 전환교육, 고등교육, 가족지원, 관련서비스, 장애학생 행동특성, 스포츠 활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연도별 연구 주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주제

연도 연구주제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빈도 (%)
교직원문화· 교직적응		1				1	3	1	2		1	9	13.64
교육체제· 교육과정운영		1						2				3	4.54
교과·교수 전략		1	1			1	3			3		9	13.64
통합교육	1	1		1		3	1	4	1	2	2	16	24.24
전환교육			2		1	2	1		6	4	1	17	25.76
고등교육								2				2	3.03
가족지원								1	1			2	3.03
관련서비스								1				1	1.52
장애학생 행동특성			1		1		1	1	1			5	7.57
스포츠 활동				1					1			2	3.03
합계	1	4	4	2	2	7	9	12	12	9	4	66	100
빈도(%)	1.52	6.06	6.06	3.03	3.03	10.6	13.64	18.18	18.18	13.64	6.06	100	-

## 4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1호)

연구 주제는 전환교육에 관한 연구가 17편(25.76%)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통합교육 16편(24.24%), 교과 및 교수전략, 교직문화와 교직적응 등이 각각 9편(13.64%), 장애학생특성이 5편(7.57%), 교육체제·교육과정 운영이 3편(4.54%), 고등교육과 가족지원, 스포츠 활동이 각각 2편(3.03%), 관련서비스가 1편(1.52%)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 주제의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환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는 2007년을 기점으로 거의 매년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13년에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통합교육 관련 질적 연구도 2005년부터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2편 정도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위영역별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직문화와 교직적응 등을 주제로 한 연구는 교직생활적응(3편), 교직문화(2편), 직무경험(1편), 교사역할(1편), 교사이미지(1편), 교직사회화 과정 분석(1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체제와 교육과정 운영을 주제로 한 연구는 총 3편인데, 교육체제 관련하여 주 5일 수업제로 인한 토요일요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의 견해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교육과정 관련하여 중등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및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와 정신지체 특수학교 학생에게 적합한 과학교육과정 실행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졌다.

교과 및 교수 전략을 주제로 한 연구는 반성적 사고와 멘토링 과정에 의해 중등특수교사의 PCK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본 연구(2편)와 체육수업(2편), 지역사회중심교수(3편), 뇌교육프로그램(1편), 시각중복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방법(1편)으로 총 9편이 이루어졌다. 통합교육을 주제로 한 16편의 연구는 통합지원요구에 관한 연구(3편), 좋은 친구프로그램 및 창작연극활동을 통한 장애이해에 관한 연구(2편), 부모, 교사의 입장에서 살펴본 통합교육의 인식에 관한 연구(4편), 통합수업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4편), 고등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 적응 및 학생문화에 관한 연구(2편), 통합경험이 있는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1편)로 구성되어 있다.

전환교육을 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들 연구는 진로·직업교육(7편), 전환교육 인식 및 수행(7편), 전환을 위한 지원요구(3편)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직업교육에서는 지역사회 연계과정을 통한 취업지도(1편),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업무경험(3편), 지적장애 중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한 개인중심계획 회의에 참여한 부모와 교사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1편),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이 실제로 진로·직업교육을 운영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한 연구(1편), 청각장애학생들의 직업교과에 대한 흥미 및 욕구를 파악한 연구(1편)가 이루어졌다.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수행에는 전환교육 전반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3편)가 있는 반면, 전환계획 요구 평가, 미래계획 사정, 자기결정 등 구체적인 전환관련 주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3편)도 이루어졌다. 한편 전환교육 수행에 따른 어려움을

4가지 딜레마 프레임을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1편)도 이루어졌다. 전환을 위한 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는 3편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기 전환을 위한 재택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어머니 기대(1편), 지적장애학생의 성인기 자립생활 지원(1편), 자폐청소년의 성인기 전환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연구(1편)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2편)는 모두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등교육 지원방안에 관한 특수교사와 인문계 고등학교 통합 학급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1편)와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대학입학 및 지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1편)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지원을 주제로 한 연구는 가족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중재되어야 할 어머니와 지적장애 자녀간의 부적강화의 빛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본 연구(1편)와 초임특수교사가 지적장애 학생 부모교육에서 어머니와 경험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장면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석한 연구(1편)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관련서비스를 주제로 한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농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수화통역지원의 실태를 알아본 연구(1편)가 이루어졌다.

장애학생 행동특성을 주제로 한 연구 5편은 자폐성 장애학생특성(4편), 지적장애 학생특성(1편)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사소통 시 명료화 행위, 대화행동 특성, 부적응 행동에 대한 인식,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지적장애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성비행 경험을 탐색한 것이었다.

스포츠 활동을 주제로 한 연구는 역도선수로 전국체전에 참여한 지적장애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1편), 발달장애청소년의 스포셜올림픽 배구캠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부모와 교사들의 경험과 요구에 관한 연구(1편)가 있었다.

### 3. 연구 방법의 동향

#### 1) 연구 유형별 동향

중등특수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연도별 질적 연구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현상학과 사례연구가 각각 6편(9.09%),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실행연구가 각각 3편(4.54%), 근거이론 1편(1.52%), 기본적 질적 연구 44편(66.68%)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정 유형의 방법을 활용한 연구보다는 기본적 질적 연구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4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1호)

<표 3> 연구 유형

연구유형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비율 (%)
문화기술지		1						1			1	3	4.54
근거이론			1									1	1.52
현상학						1		1		2	2	6	9.09
내러티브							1	1		1		3	4.54
실행연구							1			2		3	4.54
사례연구				1				1	3	1		6	9.09
기본적 질적 연구	1	3	3	1	2	6	7	8	9	3	1	44	66.68
합계	1	4	4	2	2	7	9	12	12	9	4	66	100
빈도(%)	1.52	6.06	6.06	3.03	3.03	10.6	13.64	18.18	18.18	13.64	6.06	100	-

2) 장애 유형별 동향

중등특수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질적 연구의 연도별 장애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장애 유형(중복빈도처리)

장애유형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비율 (%)
시각장애								1		1		2	3.03
청각장애			1				1	1	1	1		5	7.57
정신지체(지적장애)	1	3	1	1	1	5	4	3	4	3	3	29	43.93
지체장애		1	1	1		1		1	1	1		7	10.61
정서·행동장애							1		1	1		3	4.54
자폐성장애			1	1	1		1	1	2			7	10.61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1	1	1.52
건강장애													
발달장애			1	1		1	1	2			1	7	10.61
중복장애						1				1		2	3.03
미제시		1				1	4	5	5	5	1	22	33.33
합계	1	5	5	4	2	9	12	14	14	13	6	85	128.78
비율(%)	1.52	7.57	7.57	6.06	3.03	13.64	18.18	21.21	21.21	19.7	9.09	128.78	-

현행 특수교육법 상의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감안할 때, 의사소통장애와 건강장애영역에서 질적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가 제일 많이 수행된 장애 유형은 정신지체 29편(43.93%)이고, 해마다 중등특수교육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부터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장애에서 각각 7편(10.61%), 청각장애에서 5편(7.57%)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반면 장애 유형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22편(33.33%)이 있었다.

### 3) 연구 참여자의 수 및 유형의 동향

연구 참여자의 수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 수는 6-10명이 26편(39.39%)으로 가장 많았고, 1-5명이 23편(34.8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 연구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명 이상 논문도 5편(7.58%)으로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일반학생 또는 일반교사를 포함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5> 연구 참여자의 수

연도 인원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비율 (%)
1-5명		1	2	1	1	4	4	5	1	3	1	23	34.85
6-10명			2			2	2	5	8	5	2	26	39.39
11-15명		1				1		1	2	1		6	9.09
16-20명		2					2	1			1	6	9.09
21명 이상	1			1	1		1		1			5	7.58
합계	1	4	4	2	2	7	9	12	12	9	4	66	100
빈도(%)	1.52	6.06	6.06	3.03	3.03	10.6	13.64	18.18	18.18	13.64	6.06	100	-

연구 참여자 유형을 학생, 교사, 학부모, 기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사가 41편(62.12%)으로 제일 많았고, 장애학생 부모 15편(22.73%), 장애학생 14편(21.21%), 일반교사 12편(18.18%), 일반학생 6편(9.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 참여자 유형(중복빈도처리)

연구 참여자 유형		N	빈도(%)
학생	장애학생	14	21.21
	일반학생	6	9.09
	<b>소계</b>	<b>20</b>	<b>30.30</b>
교사	관리자	2	3.03
	특수교사	41	62.12
	일반교사	12	18.18
	<b>소계</b>	<b>55</b>	<b>83.33</b>
학부모	장애학생 부모	15	22.73
	<b>소계</b>	<b>15</b>	<b>22.73</b>
기타	관련전문가	4	6.07
	복지시설종사자	1	1.51
	특수교육보조원	1	1.51
	자원봉사자	1	1.51
	<b>소계</b>	<b>7</b>	<b>10.60</b>
<b>총계</b>		<b>97</b>	<b>146.96</b>

<표 7>은 연구 참여자 유형을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장애학생, 특수교사, 일반교사, 장애학생 부모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특수교사가 참여자인 연구는 2011년 이후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연도별 연구 참여자 유형(중복빈도처리)

연구 참여자	연도											계	빈도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장애학생		1	2		2		3	3	1	1	1	14	21.21
일반학생	1	1						2	1		1	6	9.09
관리자		1						1				2	3.03
특수교사		4	3	1		3	7	7	8	6	2	41	62.12
일반교사		1		1		2	1	5	1	1		12	18.18
장애학생 부모		1		1	1	3	1	3	3	2		15	22.73
관련전문가					1	1		1		1		4	6.07
복지시설종사자											1	1	1.51
특수교육실무원						1						1	1.51
자원봉사자							1					1	1.51
합계	1	9	5	3	4	10	13	22	14	11	5	97	146.96
빈도(%)	1.52	13.64	7.57	4.54	6.06	15.15	19.7	33.33	21.21	16.67	7.57	146.96	-

4) 교육환경별 및 학교급별 동향

연구 참여자가 속해 있는 교육환경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특수학급 33편(50%), 특수학교 31편(46.97%), 일반학급 16편(24.24%), 기타 1편(1.52%), 미제시 2편(3.0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별로 중복된 연구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7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2편,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5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과 장애관련 복지시설 1편이다.

<표 8> 교육환경(중복빈도처리)

연도 교육환경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빈도 (%)
특수학교		2	2		1	3	7	2	8	5	1	31	46.97
특수학급			2	1	2	2	5	8	6	3	4	33	50.00
일반학급	1	2	1	1	1	3		5	2			16	24.24
기타											1	1	1.52
미제시									1	1		2	3.03
합계	1	4	5	2	4	8	12	15	17	9	6	83	125.76
빈도(%)	1.52	6.06	7.57	3.03	6.06	12.12	18.18	22.73	25.76	13.64	9.09	125.76	-

학교급별 유형은 <표 9>와 같이 중학교 33편(50%)과 고등학교 42편(63.64%), 기타 12편(18.18%)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전공과 단독으로 수행된 연구는 한편도 없었으며 전공과는 다른 학교급별 과정과 함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교급별이 중복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복 16편, 중·고·전공과 중복이 2편, 고등학교와 전공과 중복이 2편, 고등학교와 전공과 그리고 졸업 후 과정 중복이 2편,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복이 1편이며 학교급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중등'으로만 명시한 연구가 9편으로 나타났다.

<표 9> 학교급별(중복빈도처리)

연도 학교급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빈도 (%)
중학교	1	3	2	2	2	6	3	3	6	4	1	33	50.00
고등학교		2	3	1	2	2	7	9	7	5	4	42	63.64
전공과									3		1	4	6.06
기타						1	2	2	5	2		12	18.18
합계	1	5	5	3	4	9	12	14	21	11	6	91	137.88
빈도(%)	1.52	7.58	7.58	4.54	6.06	13.63	18.18	21.21	31.82	16.67	9.09	137.88	-

5) 자료 수집 방법 및 기간의 동향

자료 수집 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이 면담 65편(98.48%), 관찰 26편(39.4%), 문서자료 20편(3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료 수집 방법(중복빈도처리)

자료 수집 방법		N	빈도(%)
면담	개별심층면담	59	89.39
	포커스그룹면담	6	9.09
	<b>소계</b>	<b>65</b>	<b>98.48</b>
관찰	참여관찰	24	36.37
	비참여관찰	2	3.03
	<b>소계</b>	<b>26</b>	<b>39.4</b>
문헌	문서자료	20	30.30
<b>총계</b>		<b>111</b>	<b>168.18</b>

<표 11>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은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주로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질적 연구가 수행된 2005년부터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해오다가 2010년 이후에는 면담, 참여관찰, 각종 문서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간 삼각측정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표 11> 연도별 자료 수집 방법(중복빈도처리)

자료 수집방법 \ 연도	연도											계	빈도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개별심층면담	1	4	4	2	2	7	8	10	9	8	4	59	89.39
포커스그룹면담							1	3	1	1		6	9.09
참여관찰	1	4	3	2	1	2	2	3	2	3	1	24	36.37
비참여관찰									1	1		2	3.03
문서자료			2			2	4	1	3	5	3	20	30.30
합계	2	8	9	4	3	11	15	17	16	18	8	111	168.18
빈도(%)	3.03	12.12	13.64	6.06	4.55	16.67	22.72	25.76	24.24	27.27	12.12	168.18	-

자료 수집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이 1개월에서 4개월까지가 전체 분석 논문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월 이상 자료 수집을 한 논문이 19편(28.79%), 1개월 미만은 1편(1.52%)이었다.



<표 12> 자료 수집 기간(중복빈도처리)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빈도 (%)
자료수집기간													
1개월 미만									1			1	1.52
1-2개월		2	1			1	3	4	3	1	1	16	24.24
2-3개월						1		2	1	1		5	7.57
3-4개월		1		1		3	1	3	1	2		12	18.18
5개월 이상	1	1	2	1	1	2	3	2	4	2		19	28.79
제시 안함			1		1		2	1	2	3	3	13	19.70
합계	1	4	4	2	2	7	9	12	12	9	4	66	100
빈도 (%)	1.52	6.06	6.06	3.03	3.03	10.6	13.64	18.18	18.18	13.64	6.06	100	-

6)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반복적 비교분석법이 40편(60.6%)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방법론에 따른 특정한 자료 분석 방법을 제시한 연구가 22편(33.33%)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기타에 속하는 4편을 살펴보면 인 비보 코딩(in vivo coding) 분석 방법, 내러티브 분석절차에 따른 방법, 문화기술지 분석법이 있었다. 이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Nvivo)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 4편(6.06%)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표 13> 자료 분석 방법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빈도 (%)
자료분석방법													
반복적 비교분석		3	3	1	1	2	4	8	12	4	2	40	60.6
Colaizzi 분석							1					1	1.52
Giorgi 방법										1	1	2	3.03
Van Kaam의 현상학적 분석										1		1	1.52
Kvale 면접분석						1						1	1.52
Patton 내용분석				1		1						2	3.03
주제 분석						1	1	2				4	6.06
개방,축,선택코딩			1				1					2	3.03
Spradley의 영역/분류분석	1				1	1		2				5	7.57
컴퓨터프로그램						1	1			2		4	6.06
기타		1					1			1	1	4	6.06
합계	1	4	4	2	2	7	9	12	12	9	4	66	100
빈도 (%)	1.52	6.06	6.06	3.03	3.03	10.6	13.64	18.18	18.18	13.64	6.06	100	-

7) 진실성 검증

진실성 검증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 가지의 방법보다는 다각도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도를 높이고 있었다.

<표 14> 진실성 검증(중복빈도처리)

연도 진실성 검증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빈도 (%)
참여자 확인	1	2	3	2	1	6	4	7	8	7	3	44	66.67
삼각측정법		3	2	1	1	3	7	6	5	6	1	35	53.03
동료 검토	1		2	2	1	6	4	7	4	7	2	36	54.54
장기간 관찰										2		2	3.03
기타	1				1	1	1	3	1	1	1	10	15.15
미제시		1	1				1	1	2			6	9.09
합계	3	6	8	5	4	16	17	24	20	23	7	133	201.51
빈도(%)	4.54	9.09	12.12	7.58	6.06	24.24	25.76	36.36	30.3	34.85	10.61	201.51	-

연구 참여자 확인법이 44편(66.67%), 동료 검토법이 36편(54.54%), 자료 및 학제 간 삼각측정법이 35편(53.03%)으로 나타났다.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5가지의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2편(3.03%) 존재하는 등 최근에는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두 가지 방식 보다는 다양한 검증 방법들이 함께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진실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논문도 6편(9.09%)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등특수교육에 관련한 최근 질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간된 국내 학술지 논문 중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 66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연도 및 학술지별,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별로 분석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국내 연구 방향과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 1. 연도별·학술지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는 2005년에 처음으로 학술지에 등재되기 시작하여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특수교육 전체에서 이루어진 질적 연구에 비해 5년 늦게 이루어진 것이지만(박미화, 강성중, 2012)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스스로 신변처리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학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각 학생마다 개별적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기 문제와 성인기 준비의 압력, 직업준비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중등특수교육 현장에서 양적 연구방법론만을 사용하여 현장의 경험을 고스란히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참여자의 심층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데 강점을 보이는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가 가장 많이 발표된 학술지는 ‘지적장애연구’였으며 그 밖에도 다수의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에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장애연구’에는 한편의 논문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학습장애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면접 및 사례연구가 3.4%에 그칠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중·고등학생에 반해 초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김소희, 정혜승, 2007; 김동일 외, 2009).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학습장애 청소년에게 적은 관심을 보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이미 연구대상에 포함된 많은 수가 학습장애의 어려움을 그대로 지닌 상태에서 청소년이 되어 있으리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김소희, 정혜승, 2007). 향후 중등단계에서 겪게 되는 학습장애 학생이나 관련인들의 어려움 및 적응과정, 특정경험의 심층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학습장애 분야에서도 질적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특수교육을 대표하는 학술지가 아닌 중등교육관련, 고용관련 학술지 등에도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중등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 사회참여에 대해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된다면 중등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과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중등특수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66편의 질적 연구의 주제는 전환교육(25.76%), 통합교육(24.24%), 교과 및 교수전략(13.64%), 교직원화와 교직 적응(13.64%), 장애학생 행동특성(7.57%), 교육체제·교육과정 운영(4.54%), 고등교육

(3.03%), 가족지원(3.03%), 스포츠 활동(3.03%), 관련서비스(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환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는 2007년을 기점으로 거의 매년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13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전환교육은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취업, 주거생활, 지역사회참여, 여가활동 등을 적절히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Sitlington, et al., 2008). 그러나 전환교육 관련 질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역들에 중점을 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에서는 전환교육 성과의 한 영역인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가 없다. 졸업 이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장애학생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등특수교육 현장에서는 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심이 장애학생의 여가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인기로 전환하는 중증장애 청소년의 독립생활과 가족지원에 관한 질적 연구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통합교육은 2007년과 2009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해마다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특수교육 질적 연구에서 통합교육이 전환교육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라는 점은 중등특수교육에서도 통합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분리교육 환경인 특수학교보다 통합교육 환경인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17,084명이 더 많은 실정(교육부, 2015)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통합교육은 일반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통합수업의 어려움, 장애학생의 일반학교에서의 적응 곤란, 입시위주의 인문계 고등학교 내에서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점 등 다양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중등특수교육에서의 통합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통합교육의 선진사례를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단위학교 중심으로 통합교육의 성공적 실천 사례가 확산되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논문에서 관련서비스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진 논문은 총 1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의 수화통역 실태에 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4년 개정된 미국의 장애인교육향상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IDEIA)에서는 관련서비스에 수화통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는 수화통역이 관련

서비스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조인력으로 수화통역사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조기에 인공와우수술 및 재활훈련을 거쳐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들을 위한 관련서비스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질적 연구가 소수자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한다는 점에 비춰, 청각장애학생들을 비롯한 저빈도 장애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학교생활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질적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연구 방법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 논문들의 연구 방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7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유형을 살펴보면, 기본적 질적 연구(66.68%)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조태곤 외(2014)와 김영석(2014)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질적 연구는 다양한 철학적 가정들을 토대로 연구가 산출하는 정보 및 내용에 대한 실제적 관심과 연구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할지에 따라서 연구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윤창국, 2013). 그러나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에서는 문화 기술지, 현상학, 근거이론, 내러티브 등 철학적 가정을 토대로 한 연구보다는 특정 연구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본적 질적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의 유형은 질적 연구를 통해 어떠한 주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 탐구 되었는지를 이해 하는 유용한 자료이므로(김영석, 2014), 향후의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에서는 철학적 배경을 담당하는 연구논리와 연구 설계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수행방법 및 자료해석방법까지 포함하는 연구의 체계(조용환, 1999, Crotty, 1998)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적 고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연구 중 정신지체(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9편(49.93%)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각각 7편(10.6%)씩 이루어졌다. 장애 유형 중 의사소통장애와 건강장애 영역에서는 질적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가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현재까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동안 이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김영표, 강종구, 2015), 중등특수 교육 관련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논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건강장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한 중등특수교육 관련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같은 장애영역에서도 장애청소년 대상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혜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 유아 및 아동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 시기의 자폐성 장애 청소년 대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폐성 장애 청소년 대상 연구의 상당수는 문제행동 중심 중재전략을 통한 실험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7년을 기점으로 자폐성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청소년기 장애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어려움 등을 그들이 처한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한편 장애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논문이 22편(33.33%)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학급에 소속된 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여러 장애 유형이 섞여 있는 특수학급의 특성상 장애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정확한 정보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게 하여 그 삶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 유형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제공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환경별 및 학교급별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가 속해 있는 교육 환경은 특수학급이 가장 높은 비율(33편, 50%)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급으로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아특수교육이나 초등특수교육과 마찬가지로 중등특수교육에서도 통합교육을 연구 주제로 한 질적 연구가 타 주제에 비해 많이 수행되고 있음을 볼 때, 학교급별 유형에서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진다. 반면 특수학교는 31편(46.9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학생의 졸업 후 사회로의 전환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수학급에 비해 이전부터 직업교육을 활발히 실시해 온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등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이나 전환교육 관련 연구물이 증가하는 추세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들이 심도 있게 수행되어져 장애학생들의 중등교육 이후 사회로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급별 유형은 학교급별로 중복된 연구와 학교급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전체 논문 중 31편(46.97%)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초등특수교사와 달리 중등특수교사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학교급별 상관없이 서로 교류하고 있고,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어 학교급별 교사들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중등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학생들을 모두 지도하고는 있지만, 생활연령에 따른 장애학생의 발달특성이 다르고, 개개인의 요구사항이 다르기에 앞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정확한 학교급별 정보를 제시해 준다면 연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참여자 수 및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의 수가 6-10명이 26편, 1-5명이 23편으로 전체 분석 논문 중 74.24%(49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개별적 심층면담과 참여 관찰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의 특성에 기인한다. 연구 참여자 수를 늘리게 되면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적 심층면담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포커스 그룹면담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커스 그룹면담은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하여 소집단을 구성하여 면담하는 방법으로 구성원 간에 대화를 자극시킴으로써 개별 심층면담에 비해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노진아 외, 2011)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 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 참여자 수를 늘려 실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 유형은 특수교사가 연구 참여자인 연구가 41편(62.12%)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장애학생이 참여자인 연구가 14편(21.21%)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등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청소년 즉 청각장애, 경도 정신지체, 고기능 자폐성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장애학생이 연구 참여자로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면 그들의 삶에 대한 의미는 한층 더 공감어 되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그들의 경험이나 인식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질적 연구가 더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료 수집 방법 및 기간을 살펴보면, 중등특수교육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면담 65편(98.48%), 관찰 26편(39.39%), 문서자료 20편(30.3%)으로 나타나 자료 수집 방법은 주로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 면담만을 실시하지 않고 참여관찰 및 다른 문서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자료수집 삼각측정법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자료 수집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1개월에서 4개월까지가 전체 분석 논문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5개월 이상의 연구가 제일 많았는데, 가장 장기간 이루어진 연구는 18개월간 수행되었으며 자료 수집 기간이 길수록 참여관찰과 면담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한편 자료 수집 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연구가 13편(19.7%)에 이르렀는데 이는 면담자료만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면담은 세 번의 면담을 거치며 3일에서 1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은 2-3주 정도가 된다(Seidman, 2009).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면담을 주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삼으면서 자료 수집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연구는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기간뿐만 아니라 면담을 진행한 경우 몇 회의 면담을 거쳤고, 면담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등을 자세히 명시하여 연구의 질을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자료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한 논문이 45편(68.18%)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 유형별 자료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14편(21.21%)으로 단순히 반복적 비교분석법이라고 제시한 연구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질적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주제를 찾아 범주화하는 귀납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자료 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연구 유형별 자료 분석 방법에도 그 차이가 존재하며(Creswell, 2013), 어떠한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는가에 따라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 및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석, 2014). 따라서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 방법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각 연구 유형에 부합하는 자료 분석 방법을 밝혀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진실성 검증을 살펴보면, 중등특수교육 질적 연구에서 진실성 검증에 대한 분석 결과 한 가지의 방법보다는 다각도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확인법, 동료 검토법, 자료 및 학제 간 삼각측정법을 모두 활용한 연구가 12편(18.18%)이었고, 참여자 확인법과 자료 및 학제 간 삼각측정법을 함께 활용한 연구는 10편(15.1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향은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에서 범하기 쉬운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피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는 장기간 관찰법이 있다. 장기간 관찰법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혹은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관찰을 수행함으로써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다(Merriam, 2009).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24편(36.36%)에 이르는데 진실성 검증에서 장기간 관찰법을 사용한 논문은 2편(3.03%)에 불과하다. 이는 자료 수집 방법 시 관찰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나 현장에 대한 장기간 참여관찰은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앞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장기간 참여 관찰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참여 관찰을 하는 경우, 몇 회의 관찰을 했고, 관찰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등을 명시한다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더욱 확보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랜 기간 한국 특수교육학계에서는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가설을 세워놓고 가설과 관련한 요인을 탐구하는 양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는 중등특수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2005년을 기점으로 중등특수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현장의 경험을 통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질적 연구가 점차 확산되게 되었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고무적인 일이나 질 높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질적 접근의 철학적 배경과 연구 방법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소영 (2014). 지체장애학생의 전환교육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1990년~2013년까지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1), 25-44.
- 강유석, 노형규 (2009). 특수체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 고찰.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7(3), 285-310.
- 강혜경 (2012). 자폐 청소년 장애학생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1(3), 127-147.
- 교육부 (2015).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김동일, 고은영, 정소라, 이유리, 이기정, 박중규, 김이내 (2009). 국내 학습장애 연구의 동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0(2), 283-347.
- 김소희, 정혜승 (2007). 국내 학습장애아 교육 관련 연구동향의 분석: 1996-2006년 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9(2), 223-256.
- 김영석 (2014). 평생교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2000년-2013년): 「평생교육학연구」와 「Andragogy Today」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3), 135-166.
- 김영표, 강중구 (2015). 병원학교 특수교사가 가지는 건강장애학생 및 건강장애학생교육에 대한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1), 95-117.
- 노진아, 이운숙, 강미애, 박동환, 이유리 (2011). 유아특수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 분석: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내학술지 논문 중심으로. **특수교육**, 10(1), 305-328.
- 박미화, 강성중 (2012). 한국특수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2), 205-226.
- 박승희 (2006). **중등특수교육의 정체성과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06년 동계 연수 자료집.
- 박은혜 (2001). 특수교육 및 재활에서의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재활복지**, 5(1), 56-84.
- 배성직 (2004). 우리나라 전환교육 평가 연구들의 경향과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65-284.
- 서유진, 이동성 (2013). 장애학생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분석: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준거에 기초하여. **특수아동교육연구**, 15(20), 215-243.
- 서효정 (2014). 청소년기 지적장애 학생의 적응행동 관련 연구동향과 과제: 2002-2013년 국내 중재연구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6(2), 55-86.
- 송소현, 유애란 (2011) 정신지체·자폐성 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1990년~2010년까지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3(2), 221-248.
- 유애란, 김명자(2009) 중등특수교육 실습 실태와 개선방향. **나사렛논의**, 13, 67-90.
- 윤창국 (2013). 평생교육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 선택 기준 정립에 대한 소고. **평생교육학연구**, 19(40), 1-26.
- 이숙향 (2010). 국내 중등 통합교육 연구의 동향 및 향후 과제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339-369.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1), 91-121.

- 조태곤, 김용욱, 우정환, 김경일 (2014). 통합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1), 79-98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48-71.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Crotty, M. (1998). *The foundations of social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4, P. L., 108-446
- Kvale, S. (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 CA: Sage.
- Merriam, S.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_\_\_\_\_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Patton, M.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ery Park, CA: Sage
- Seidman, E., (저), 박혜준, 이승연(공역) (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 Sitlington, P.L., Clark, G.M., & Kolstoe, O.P.(저), 박승희, 박현숙, 박희찬(공역) (2008) **장애청소년 전환교육**. 서울: 시그마프레스.
- Spradle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enhart & Winston.
- Van Kaam, A. L.(1969). *Existential foundations of psychology*.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Qualitative Research on Secondary Special Education

**Baek, Hye Ju**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Hong, Jeong Suk**

Daegu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trends in qualitative research on secondary special education in Korea and to propose a future direction, by analyzing research papers on secondary special education published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Among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between 2005 and June 2015, 66 paper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se papers were analyzed by year of publication, by journal, by research topic, and by research methodology.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outcomes of qualitative research on secondary special education began to be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in 2005, and the publication of those papers was most active in 2012 and 2013. Among the examined journals, Research on Intellectual Disorder published the largest number of research papers. The most researched topics were, 'inclusive education' and 'transition education'. Basic qualitative research was the most common type of methodology, mental disorders were examined by type of disability, and special class was examined by school class type. The number of research participants per study ranged from, six to 10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were most often the research. In terms of data collection, one-on-one interviews were most widely use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ive months or longer. Repetitive comparative analysis was the most common analysis method, and verification of participant identity was most commonly used to test the integrity of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future direction of qualitative research on secondary special education.

**Key Words :** Secondary Special Education, Qualitative Research, Trend Analysis

---

논문 접수: 2015. 12. 04 심사 시작: 2015. 12. 10 게재 확정: 2015. 12. 24